12 고구마, 널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니?

전라는 '감자·감제'… 제주는 '감저'… 충청은 '무수감자'

전남 해남의 한 마을에 '투리' 란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투리네 마을엔 얼마 전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머니가 '서울상회' 란 채소 가게를 열었거든요. 투리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감자' 열 개를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감자 열 개 주세요."
"심부름 온 모양이구나. 옜다, 한 개 더 얹어 열한 개 주마."
"어, 이상하다? 이건 감자가 아니잖아요."
당황한 투리가 외쳤습니다. 둘 사이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투리가 아주머니에게 달라고 한 건 사실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 입니다. 전남 광주·무안·영암·장흥·해남·완도·진도 등에선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거든요. 전남 영광·고흥·강진 등에선 '감제', 제주에선 '감저' 라고 부르지요. 그런가 하면 고구마의 충청도식 표기는 '무수감자' 예요. 고구마의 생김새가 무(무수)와 비슷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처음 들어온 건 조선 후기예요. 1763년 통신사(通信使·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 자격으로 일본을 찾은 조엄(1719~1777년)은 비가 많이 내려도, 가물어도 항상 잘 자라는 고구마를 보고 생각했어요. '흉년이 들어도 고구마만 있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진 않겠구나!' 결국 그는 귀국하면서 씨고구마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퍼트렸습니다. 당시 일본말로 고구마는 '고꼬이모' 였는데 우리나라에선 '고귀위마' 를 거쳐 고구마로 불리게 됐어요.

하지만 예부터 고구마의 또 다른 이름은 감자였습니다. 고구마가 주로 재배되는 제주도와 호남지방(전라남·북도)에서 '감저(甘藷)' 라고도 불렸거든요. 단맛(甘)이 나면서 참마(藷)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라나요. 이 때문에 고구마는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 감자로 불립니다. 표준어 감자와 고구마 방언(감저)의 어원 역시 모두 '감저' 예요.

여기서 잠깐, 그럼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자를 뭐라고 할까요? 호남지역에선 감자를 '하지감자(하짓감자)' 라고 부릅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고구마와 달리 감자는 하지(夏至·양력 6월 21일경)에 수확하기 때문이에요. 전남 진도에선 '북감자' 로 불린다고 합니다. 감자가 우리나라 북(北)쪽에서 전해진 작물이란 의미라고 해요.

1 '고구마, 널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니?' 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감제' 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 '고구마' 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시다.

2 여러분이 '감제' 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감저' 를 먹은 경험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